

현장시선



방혜성

제주지방조달청장

제주의 겨울바람은 유난히 차갑고 매섭다. 그러나 밤을 따라 길게 이어진 현무암 돌담은 거센 바람에도 끄떡없다. 접착제 하나 없이 쌓아 올린 돌담이 쓰리지 않는 것은 돌마다 숭숭 뚫린 바람구멍 때문이다. 제주에서 시멘트나 벽돌로 담을 쌓으면 강풍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지만, 돌담은 돌 사이에 바람길이 있어 흔들림지언정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바람을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돌담의 지혜는 제주 산업 현장에서도 발견된다. 지역 기업들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도전과 혁신으로

제주 돌담은 제주 기업과 닮은 꼴

인공지능(AI)과 친환경 기술이라는 변화의 바람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며 단단한 생존력을 키우고 있다.

제주 산업이 1차 산업과 단순 서비스업 중심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다. 건축물의 복잡한 설계 도면을 AI가 정밀 검토하고,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 솔루션에 대신한다. 기상 정보를 분석해 최적의 '워케이션' 코스를 제안하고, 수명을 다 한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장치로 재탄생시키는 등 제주의 산업이 혁신 기술을 만나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혁신 기술이 시장이라는 넓은 바다로 나아가려면 든든한 디딤돌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 바로 조달청이다.

올해 제주지방조달청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소통의 장을 열었다. 최근에는 혁신 제품으로 지정된 10개 기업을 초청

해 위치정보시스템, 스마트온실, 해상부유구조물 등 혁신 기술을 공유하고 규제 개선과 공공조달 진입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아울러, 수요기관과 기업이 만나 기술 활용을 논의하는 '공공조달 파트너십 데이' 역시 판로 개척에 기여하고 있다. 단순 제품 소개를 넘어 현장에서의 활용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은 돌담의 바람구멍처럼 조달기업에게 새로운 숨구멍을 제공한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 성장 뒷받침을 목표로 혁신조달강화, 조달시스템 인프라 강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AI·기후테크·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 중심의 혁신 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현재 1조원에서 2030년까지 3조원으로 확대하고, 혁신 제품 발굴을 5000개까지 확대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하고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는 제주도 내 기업들이 도전 할 무대 자체가 넓어짐을 의미한다.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공공 AX(AI Transformation)'은 정부가 먼저 AI 적용 제품·서비스를 구매해 초기 시장에 힘을 불어넣는 정책이다. 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하는 흐름은 제주 기업이 기술력을 겸증받고 더 큰 시장으로 도약할 기회가 될 것이다.

돌담이 틈새로 거친 바람을 이겨내듯, 내년에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조달개혁을 통한 변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기업의 숨통을 트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주지방조달청도 새해에는 중소·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현장소통과 간담회를 확대해 민생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는 혁신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사설

제주 불법 관광영업 발본색원 나서야 한다

제주지역에서 불법 관광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64건이 적발됐다. 지난해(31건)보다 2배 늘었다.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면서 관광객 안전 미확보와 도내 업계 피해 등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다.

자치경찰은 3월부터 11월까지 단속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을 비롯 불법유상운송 43건과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관광진흥법과 여객자동차운수법 등을 위반한 행위들이다. 대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2~3만원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한 내용이었다. 중국인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텐터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이 불법영업의 배경이다.

불법영업은 개별 관광객 비중이 커지는데서 기인한다. 제주관광공사의 2024 제주 방문 외국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90.1%가 개별여행이었다. 중국인관광객의 여행 방식은 90% 이상이 자유여행이다. 여행 트렌드 변화에 맞춰 도내 업계도 빨리 대응하고 있지만 불법영업이 훼방을 놓고 있다. 문제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등 고질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 업계 피해를 차단함은 물론 관광객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 호미로 막을 걸기 위해 막는 우를 범해선 안될 노릇이다.

공공형 장애인 거주시설, 전국 를 모델로

독립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형 장애인 거주시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시설은 전국적으로 권장될 새로운 장애인 주거복지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제주가치돌봄 서비스는 단순히 물품이나 현금 지원이 아닌 읍·면·동 통합돌봄 전담 창구를 통한 공무원의 방문 조사와 맞춤형 돌봄 계획 수립을 통해 이뤄진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기존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에게 굳건한 안전망을 제공한다. 조고령사회 진입은 위기인 동시에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기회다. 제주가치돌봄 서비스가 모든 도민이 살고 있는 집에서 '가치 있는 일상'을 지키는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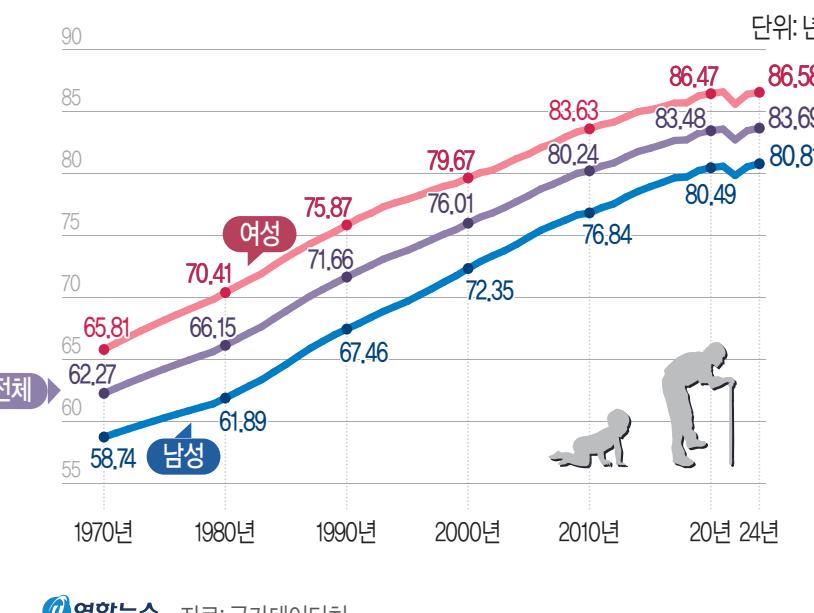
영을 맡을 수탁기관을 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공개 모집하고 있다. 수탁기관은 각 장애인에게 독립된 주거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또 장애인 건강관리와 직업·사회활동 참여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신개념 공공형 거주시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 들어서는 것은 의미가 있다. 제주시는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물론 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토록 해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약속한 만큼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래픽 뉴스

기대수명 추이

현재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가정했을 때 해당 연도에 태어난 출생아(0세)의 기대수명



연합뉴스

자료: 국가데이터처

한국일보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옥 편집국장 고대로
④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 750-2114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i@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기 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부고

이태종 아버지 벽진이공 기택 (훈장·향년 97세)께서 서기 2025년 12월 3일 21시 38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5년 12월 5일(금요일)
▶ 발인일시: 2025년 12월 6일(토요일)
 오전 7시
▶ 발인장소: 하귀농협장례식장 302호 분향실
▶ 장 지: 어음리 선영

아들 이태종 며느리 김순자
태섭 흥유경
태현 김혜숙
태경 이경숙
딸 이여춘 사위 안성순(故)
지원 김창길
선화 김성근
정윤 김용수
장손 이수용

※ 연락처: 이태종 010-4699-2265

부고

현창현 어머니 인동장씨 정순(향년 96세)께서 서기 2025년 12월 4일 08시 14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5년 12월 5일(금요일)
▶ 발인일시: 2025년 12월 6일(토요일)
 오전 6시 40분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번소
▶ 장 지: 양자공원

아들 현창현 며느리 백우숙
현종현 강해옥
딸 신생 사위 김두식
길순 김성익
길자 강동현
길선 장원규

※ 연락처: 현창현 010-3699-2828
현길자 010-3693-1322
강동현 010-4690-1717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연주현공 경상(前 중등 교장, 향년 82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립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5년 12월 5일

배우자 전영순
아들 현용우
용권
딸 현주희

며느리 흥주진
이정은

제주지방법원 형사 제4부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재고합4 포고제2호위반 등
· 피고인
망정창림

위 피고인은 포고 제2호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5. 12. 4.

판사 노현미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우리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 개발☎ 782-3644
010-4690-3636

제주지방법원 형사 제4부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재고합12 내란 등

· 피고인
망정창림, 양원출, 이성수, 강현경, 김성오, 김세훈, 정원호, 강창균, 강의향, 양문오, 문지윤, 김규림, 김두호, 양시우, 흥온(이명 흥우체), 김희현, 최병호(이상 국방경비법 위반), 양길병규, 김종인, 김희윤, 백창순, 김남형, 문진옥, 손석구, 협인, 김규현, 김현수, 고성룡, 송두경, 양이운, 김구하, 양철호, 이원형, 김인하, 이태종, 고치영, 강반상, 강정언(이상 내란)

위 피고인들은 내란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5. 12. 4.

판사 노현미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 달이나 가능합니다.”

◆ 자체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 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드립니다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